

지스트, 지역사회 과학 꿈나무 위해 도서 기증

- 사회공헌단 & (재)지스트발전재단, 전남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3곳에 500여권 기증



▲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과 (재)지스트발전재단이 화순 청풍초등학교에서 과학도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 고정주 이사장, 화순 청풍초등학교 양수열 교장, 지스트발전재단 박화석 이사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사회공헌단 '피움(PIUM)'과 (재)지스트발전재단(이사장 고정주)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과학 분야 도서를 기증했다.

지스트 사회공헌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지역 초등학교에 과학 분야 도서를 기증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재)지스트발전재단과 함께 기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화순 청풍초등학교, 담양 남면초등학교, 장성 삼서초등학교 등 전남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3곳에 총 600만원 상당의 과학도서를 전달했으며, 도서 전달식은 고정주 발전재단 이사장, 김해명·박화석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3일(금) 화순 청풍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재)지스트발전재단 고정주 이사장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풍초등학교 양수열 교장은 “지스트와 발전재단에서 학생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를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독서 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재)지스트발전재단은 2016년 설립된 이후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과 연계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도서 및 물품 지원사업,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수기 보급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과학도서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 화순 청풍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